강북구의회
GANGBUK DISTRICT COUNCIL

의정활동보도

2015년 10월 26일
(월요일)

문화신문 4면

행정보건위원회 근현대사 기념관 현장방문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위원장 구본승)는 제193회 임시회 기간 중 10월 15일 오전 10시 구청 행정관리국장(고한석)으로부터 예술인촌조성 용역 결과보고를 듣고 강북구 근현대사기념관 건립(인수봉로 20가길 24) 공사 현장을 방문하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강북구 수유동 4.19길 북한산국립공원 관리공단 수유분소 뒤편(수유동 산73-23) 일대에 부지면적 2,049㎡, 지하 1층, 지상 1층에 연면적 951.33㎡의 규모의 근현대사기념관은 전시실, 시청각실, 도서관 및 열람실, 세미나실, 강의실 등 각종 시설을 갖출 예정이며, 현재 70%의 공사진행율로 11월 30일 완공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39억원 전액 시비로 환경부와 강북구의 토지교환 방식으로 부지를 마련, 별도의 토지 보상비가 없다.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공사 관계자로부터 공사 진행 현황에 대해 보고를 듣고 지하1층과 지상1층의 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미비한 점이 없는지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구본승 위원장은 "근현대사기념관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공사 가 잘 진행되도록 부탁드리고, 특히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북부신문 6면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위 '근현대사기념관 건립' 현장 찾아

공정률 70% 올 11월 30일 완공 예정, 준비기간 거쳐 내년 개관
행정보건위원들, 지역주민 관심 큰 만큼 안전사고 유의 진행 당부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위원장 구본승)는 제193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15일 오전 10시 고한석 행정관리국장의 예술인촌조성 용역 결과보고를 듣고 강북구 근현대사기념관 건립 공사 현장을 방문하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강북구 수유동 4.19길 북한산국립공원관리공단 수유분소 뒤편 일대에 부지면적 2,049㎡, 지하 1층, 지상 1층에 연면적 951.33㎡의 규모로 들어서는 근현대사기념관은 전시실, 시청각실, 도서관 및 열람실, 세미나실, 강의실 등 각종 시설을 갖추고 내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70%의 공정율로 오는 11월 30일 완공 예정이다. 총 사업비 39억 원은 전액 시비로 마련됐다. 환경부와 강북구의 토지교환 방식으로 부지를 마련했기에 별도의 토지 보상비가 들지 않았다.

강북구는 지난 2011년 북한산 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사업 계획을 수립해 근현대사기념관 건립 등 12개 세부사업이 담긴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후 2012년 서울시에서 수립한 근현대유산의 미래유산화 기본 구상에 근현대사기념관이 포함됐으며, 2013년 강북구 근현대 역사문화유적 보존 및 활용방안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이 완료돼, 2013년 10월에 근현대사기념관 건립계획이 갖춰졌다.

지난해 기본 및 실시 설계와 북한산 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승인을 완료해 올해 1월 공사 착공에 들어갔으며, 올해 안에 공사를 마치고 내년 상반기 중 개관할 예정이다. 올해 완공 후 전시설계 등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중 민간위탁으로 운영될 근현대사기념관은 주변의 자연환경 및 역사문화자원들과 연계해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도록 공간 구조 및 프로그램을 구성할 계획이다.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공사 현장을 찾아 공사 관계자로부터 공사 진행 현황에 대해 보고를 듣고 지하1층과 지상1층의 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미비한 점이 없는지 점검을 했다.

구본승 위원장은 "근현대사기념관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공사가 잘 진행되도록 부탁드리고, 특히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위원들이 근현대사공사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